

#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제195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중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연(출판국)
- 박형순(동아애드넷)
- 빈정훈(동아MD)
- 안재혁(재경국)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사이언스)
- 이종미(동아E&D)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이태운(동아이지에듀)
- 정기성(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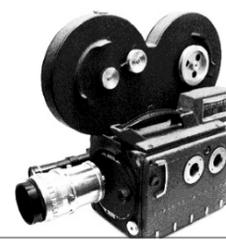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5)

## 50년 만의 마라톤 생중계 동아 DNA는 계속 됩니다

‘국가대표 마라톤’인 동아마라톤대회(서울국제마라톤대회)를 반세기만에 우리 손으로 생중계합니다. 1966년 3월 37회 대회 때 동아방송이 국내 처음으로 마라톤 생중계를 한지 50년 만에 채널A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최근 정부의 매체영향력 조사에서 ‘대한민국 빅3 미디어’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동아의 저력을 보여줄 기운찬 소식들을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 東亞日報

서울 중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1966년 동아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된 동아마라톤 2016년 채널A로 생중계된다. 동아마라톤은 1966년 첫 중계를 시작해 동아방송이 통폐합되기 직전인 1980년 3월까지 중계를 이어갔다. 올해 3월 20일에 열리는 동아마라톤(서울국제마라톤)에는 2만800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 50년 전의 그 감동... 동아마라톤, 채널A가 중계한다

## 동아방송이 1966년 국내 첫 풀코스 실황중계 채널A, 새 기술로 '명품대회=명품중계' 입증 나서

‘民放最初(민방최초)의 <풀코스> 實況中繼(실황중계)… 來日(내일) 第37回 東亞(마라톤)大會(대회)’

1966년 3월 12일자 동아일보 8면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마라톤 생중계를 알리는 안내기사가 실렸다. 생중계 뿐만 아니라 ‘마라톤의 역사’ ‘마라톤의 국제적 현황’ ‘감격의 순간’ ‘재기를 위한 제언’ 등 특집 프로그램도 생중계 중간에 방송된다고 예고했다.

1966년 3월 13일 일요일 정오. 섭씨 7도의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105명의 선수들은 서울 광화문 구사육(현 일민미술관) 앞에서 일제히 출발했다. 경기도 소사농촌진흥원을 반환점으로 다시 동아일보로 돌아오는 42.195km. 아나운서들은 이동차량에 올라타 선수들과 함께 이동하며 첫 마라톤 중계를 이

어갔다. “선수들이 내리막 코스에 들어섰습니다.” 마라톤을 중계하며 처음으로 사용된 ‘내리막 코스’ ‘오르막 코스’ ‘주폭(달리는 폭)’ 등의 용어는 마라톤 중계의 표준어가 됐다. 서울 남산과 인천자유공원(당시 만국공원)에는 중계소를 설치했고, 고성능 중계차 2대도 현장에 투입해 선수들의 작은 숨소리까지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방송을 들은 전 국민의 응원 탓이었을까. 김봉래 선수는 당시 한국 마라톤 60년의 숙원이었던 ‘20분대 벽’을 깬다. 2시간 19분 7초로 한국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채널A로 부활하는 ‘동아마라톤 중계’**  
2016년 3월 20일. 반세기만에 첫 마라톤 생중계의 설렘과 감동이 다시 찾아

온다. 1931년 3월 21일 첫 대회 이후 80여 년간 전통과 권위를 지켜온 동아마라톤(서울국제마라톤)을 채널A가 처음으로 자체 중계하기 때문이다.

2016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7회 동아마라톤대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인정한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레이스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울 시내 주요 명소를 관통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아리랑TV와 중국 CCTV를 통해 선수들의 뛰는 장면과 함께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2016 서울국제마라톤은 지상파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계된다. 지상파의 주파수 이용방식이 아닌 최근 스포츠 중계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LTE 통신망 중계방식을 채택했다.

첨단 장비들도 동원된다. 총 4대 이상의 중계차, 대형 크레인, 흔들림 방지 장치가 달린 영화 촬영용 특수 이동 중계차와 바이크, 생중계가 가능한 헬리캠 등이 마라톤 중계의 퀄리티를 높일 예정이다.

**완벽 중계 위한 흑한 속 리허설**  
성공적인 첫 중계를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채널A 마라톤 중계팀이 중계 컨트롤타워를 맡고 채널A 기술관리팀, 채널A 미디어텍이 현장을 담당한다. 스포츠 중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중계 전문 제작사도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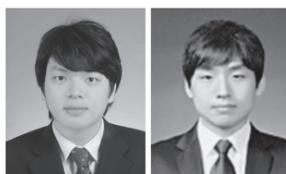
준비팀은 대회 전 까지 총 5차례 리허설을 할 예정이다.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졌던 2월 3일 세번째 리허설이 진행됐다. 영상 신호 전달, LTE 통신망 점검, 헬리캠 및 크레인 위치 확인 등의 역할 분담을 한 준비팀은 차량 3대에 나눠 타 광화문을 출발했다.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 꾸러진 회선 조정실은 선수들이 뛴 42.195km를 따라가는 3대의 차량과 연락하며 영상 신호, 통신망 점검을 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리허설은 교통 체증까지 더해져 밤 9시가 돼서야 잠실운동장에서 끝날 수 있었다. 동아방송의 영광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자부심이 오랜 리허설로 얼어붙은 준비팀의 몸을 녹인 하루였다.

전략기획본부 마라톤중계팀 김순겸 PD

## 두바이로, 북·중 접경으로... 젊은 단기특파원이 간다

### 올 하반기부터 신방검직으로

동아일보와 채널A에 단기특파원 시대가 열린다. 첫번째 활동지역은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와 중국 베이징 및 북·중 접경지대다.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채널A 인재육성위원회는 편집국 사회부 조동주 기자(2011년 입사·두바이)와 보도본부 정지부 김윤수 기자(2011년 입사·베이징 및 선양 단둥 등 북·중 접경지대)를 단기특파원으로 선



조동주 기자  
편집국 사회부

김윤수 기자  
보도본부 정지부

발했다. 단기특파원은 임기 1년 이내로 단신으로 부임해 신방 검직 특파원으로 활동한다.

단기특파원 활동지역은 국제 뉴스의 지역적 수요와 특파원 활동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두바이는 이슬람국가(IS) 사태와 시리아 난민 문제, 이란 경제제재 해제 같은 뉴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외국 언론에 대한 보도통제가 약한 지역이라는 점이 우선 고려됐다. 베이징과 북·중 접경지대는 탈북 난민 관련 소식 등 기존에도 뉴스 수요가 많은데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중 관계의 변화와 접경지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후보 지역으로 검토됐다.

단기특파원 제도 시행으로 동아미디어그룹의 해외 취재망은 한층 더 촘촘

해졌다. 기존에 워싱턴(2명), 뉴욕(1명), 도쿄(2명), 베이징(1명), 파리(1명) 등 총 7명이었던 해외 특파원 수는 단기특파원이 부임하는 하반기부터 9명으로 늘어난다.

베이징 및 북·중 접경지역 특파원에 선발된 김윤수 기자는 “채널A 단기특파원 1호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중동발 기사를 많이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단기특파원들은 올해 7월 부임할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우정렬

# 동아미디어그룹, 대한민국 '빅3 종합미디어'로 자리잡았다

## 문화체육부 조사...3개 이상 매체 보유한 미디어그룹 중 여론영향력 강한 매체 3위로 꼽혀...MBC SBS 앞질러

동아미디어그룹이 지난해 매체합산 영향력 조사에서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빅3' 미디어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원장 윤영철 연세대 교수)가 발표한 2015년 여론 집중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방송·라디오·인터넷 중 3개 이상 매체를 보유한 미디어 그룹 가운데 동아일보계열의 합산 영향력은 9.7%로, KBS계열(17.5%) 조선일보계열(11.1%)과 함께 '빅3'를 기록했다. 동아계열에는 동아일보와 채널A, 동아닷컴이 포함됐다.

동아미디어그룹의 영향력은 2군 그룹인 MBC계열(7.6%) SBS계열(7.1%), 3군 그룹인 중앙일보계열(6.4%) 매경계열(5.8%)과 큰 차이가 났다.

특히 동아미디어그룹의 영향력은 2012년 5.3%에서 2015년 9.7%로 83%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조선(58.6%)과 중앙(18.5%)의 영향력 상승폭과 비교했을 때 크게 앞서는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KBS(-39.7%) MBC(-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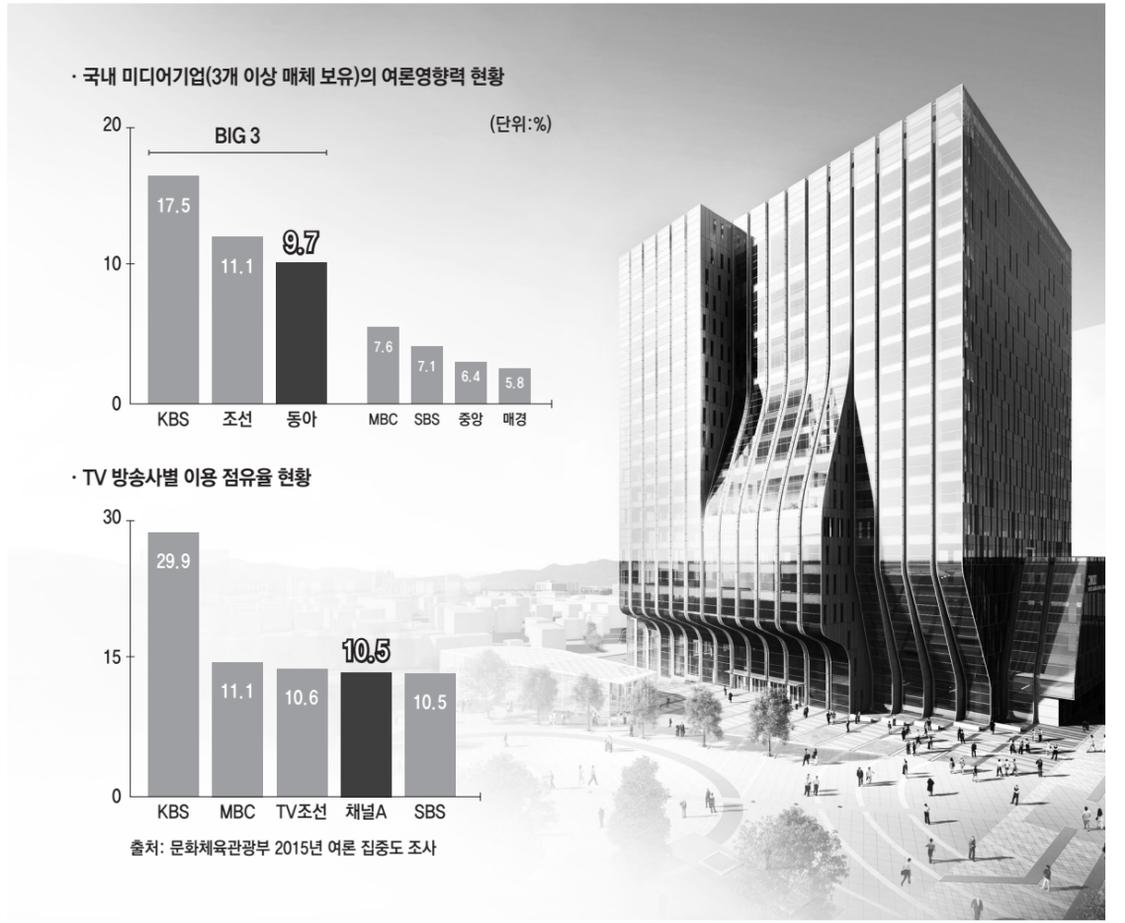
SBS(-5.3%) 등 지상파의 영향력은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V방송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지상파 TV 방송사들의 이용 점유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종합편성채널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채널A의 이용 점유율은 매년 증가해 2012년 3.1%에서 2015년 10.5%로 성장했다. 지상파인 MBC(11.2%) SBS(10.5%)를 따라잡은 것이다. JTBC의 점유율은 5.1%였다.

또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하는 지 조사한 인터넷뉴스의 이용 점유율 조사(포털 제외)에서 동아일보 인터넷뉴스의 영향력은 7.7%로 조선일보(8.7%)와 경합 중이며, 중앙일보는 5.7%다.

지난 2010년 출범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미디어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미디어집중도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신문·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등 4대 매체를 대상으로 매체들의 여론 시장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객민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 사옥 전경

## “7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채널A 종합뉴스, 가장 빠른 뉴스 된다

### ‘현장A파일’ ‘정치속풀이’ 신설 심층성과 시청자 몰입도 강화

채널A의 메인 뉴스인 ‘채널A 종합뉴스’가 지상파와 종편 채널 중 가장 빠른 메인 뉴스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채널A 보도본부는 2월 29일부터 주중 ‘채널A 종합뉴스’의 방송 시간을 오후 9시 40분에서 2시간 20분 빨라진 오후 7시 20분으로 앞당긴다. 이로써 ‘채널A 종합뉴스’는 주중과 주말 모두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된다.

오후 7시 20분은 국내 지상파와 종편의 현행 메인뉴스 중 가장 빠른 시간대다. 뉴스 시청 수요가 많은 오후 8시대를 포함하면서 뉴스 시청자를 선점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 선진국에서도 메인 뉴스 시간대를 전통적인 밤 시간대에서 퇴근 직후 저녁 시간대로 이동하는 추세다. 많은 시청자들이 퇴근 후 그날 주요 뉴스를 시청한 뒤 밤 시간동안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방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7시 20분에 방송되는 주말 ‘채널A 종합뉴스’는 지난해 12월 월평균 시청률 2,545%를 기록했고, 4분기(10~12월) 종편 4사 메인 뉴스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매일 오후 5시 반에 방송되며 연일 3% 가까이 시청률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채널A의 대표 시사·교양 프로그램 ‘뉴스 TOP10’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채널A 종합뉴스’는 시간대 개편과 함께 내용의 심층성도 강화된다. 현장 기자가 현장을 직접 뛰어 사회의 각종 이슈를 취재하고 원인과 해결책을 진단하



2월 29일 부터 오후 7시 20분에 시청자를 찾아가는 ‘채널A 종합뉴스’의 앵커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왼쪽)과 김설혜 보도본부 기자(오른쪽).

는 ‘현장 A파일’ 코너로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정치부 소속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정치 이슈의 막전막후를 설명하는 ‘정치 속풀이(속속들이 풀어주는 이야기)’ 코너도 신설된다. 청와대와 국회, 정당 등 취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기자들이 출연해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 정치 뉴스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뉴스 전달 방식도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본부는 ‘현장이 있는 뉴스는 현장에 있는 기자가 전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장의 영상과 오디오

를 스튜디오로 실시간 전달하는 유팩 연결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진행자인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과 김설혜 보도본부 사회부 기자가 대형 스크린과 진행석을 오가며 시청자들의 뉴스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채널A 종합뉴스’ 시간대 변경으로 보도본부 기자들의 하루 일과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메인뉴스가 일찍 끝남에 따라 메인 뉴스 준비로 분주했던 저녁 시간대를 취재와 아이디어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서현

## 심의·법률 사내교육 실시 채널A ‘퀄리티 저널리즘’ 강화

### 2월 3~5일 4회에 걸쳐 제작진 대상 교육 열려

채널A의 방송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심의, 법률 교육이 2월 3~5일 4회에 걸쳐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와 상암동 DDMC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심의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대비하고, ‘퀄리티 저널리즘’ 실현을 위한 채널A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에 따르면 공정성, 객관성, 재난방송, 선거방송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3회 이상 반복해 위반할 경우 심의 벌점이 2배로 높아진다. 법원 판결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무거운 벌점이 새롭게 부과된다.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변호사(장수민, 신상진)는 보도 및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채널

A 심의실 황규하 심의팀장은 심의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앵커, 보도본부 데스크, 제작본부 PD, 작가, 채널A 미디어텍 PD 등 202명은 다양한 위반 사례 교육을 통해 작은 부주의가 프로그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제작본부 제작1팀 배한수 PD는 “개국 5년차를 맞아 심의·법률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는 유익한 기회였다”며 “특히 상암동 DDMC에 근무하는 제작진은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기 어려웠는데 DDMC에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채널A는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법률교육과 제작진별 맞춤 강의를 수시로 진행해 프로그램 품질을 높이는 기회를 늘려갈 방침이다. 이번 심의·법률교육은 동아미디어그룹 사이버연수원 방송실무 코너에 올린 ‘방송평가규칙 교육’ 동영상 강의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상진



2월 5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장수민 변호사가 채널A 제작진을 대상으로 법률 분쟁 예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신문기자들 '가공의 힘' 눈뜨고, 방송기자들 '깊이의 힘' 실감

## 동아일보-채널A 인적교류, 올해로 5년째 두 매체 넘나든 기자들의 솔직담백 경험담

2011년 12월 채널A 개국을 앞두고 시작된 동아일보 편집국과 채널A 보도본부간 인적 교류가 올해 5년째를 맞으며 '신방통합 2.0'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인사에서 보도본부 기자 4명이 한꺼번에 편집국으로 파견되는 등 방송기자의 신문기자 변신이 활발해지고 있다. 개국 초부터 양사 수습기자들은 6개월간 신문·방송 교차교육을 받고 있고, 소비자경제부는 아예 편집국과 채널A 기자들로 구성된 '연합군' 부서다. 두 매체를 경험한 기자들의 역량이 높아지면서 신방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방경영 5주년을 맞아 두 세계를 넘나든 기자들의 솔직담백한 경험담을 소개한다.

### 방송뉴스 하트 '스탠드업' 하는 신문기자

요즘 동아일보 토요일 지면에는 편집국 산업부 김성규 기자의 전신이 자주 등장한다. 2월 6일자 '자동차 좌석 고급화 바람' 기사에서 김 기자는 여객기 일등석 체험을 하는 사진 속 인물로 등장한다. 지난해 11월 28일자 '1인용 이동수단 혁명' 기사에선 김 기자가 샤오미의 나인봇 미니를 직접 타는 사진이 크게 실렸다. 2년 전 보도본부에서 방송뉴스를 만들 때 자주 해봤던 '스탠드업' 경험을 신문 제작에 접목한 것이다.

김 기자는 "방송기사를 만들며 기사를 어떻게 가공해야 시청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 편집국으로 복귀한 후에도 내 기사를 어떻게 포장하면 좋을지, 어떤 이미지와 부속물을 넣으면 차별화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텍스트 기사 생산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프로듀

싱'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보도본부에서 일해 본 편집국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시너지효과다. 채널A에서 1년 2개월 근무하고 편집국으로 돌아온 정세진 기자는 "편집마인드를 갖고 신문 기사를 구성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보탬이 됐다"고 전했다.

정 기자는 방송 경험이 신문기사의 문장을 가다듬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정 기자는 "간결하게 쓰라는 당연한 얘기가 신문에만 있을 땐 잘 와 닿지 않았다. 하지만 말로 해야 하는 방송기사는 한 호흡에 읽히게 써야하기 때문에 문장이 간결하고 명쾌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채널A 문화부에 파견돼 1년 째 근무 중인 김현지 기자는 "생방송 중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팩트를 꼼꼼하게 체크하게 된다"며 "이런 습관은 나중에 신문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자주 가다 보니 현장의 가치를 새삼 느꼈다" "촬영기자, 촬영보조, 운전기사 등과 늘 한 팀으로 작업하다보니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 신문에서 눈뜬 '취재의 맛'

방송에서 신문으로 옮겨 일하는 기자들이 가장 실감하는 변화는 깊이 있는 취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송뉴스는 속성상 현장 촬영, 편집 등 후속작업이 많아 취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신문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또 1분30초라는 리포트 분량의 제약이 때로는 구구절절한 취재의 필요성을 잊게 만들기도 한다.

1년 반 동안 편집국 정치부에서 근무하고 지난해 6월 복귀한 보도본부 배혜림 기자는 "방송은 영상을 구하거나 멘트를 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신문은 취재에 집중하며 사안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출입처에서 다양한 취재원들을 접한다. 신문에 있을 때 만든 인맥이 방송에 와서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고단하지만 힘든 만큼 자신의 역량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신문과 방송기자들이 상대 매체를 경험하며 서로의 업무 특성과 애로사항을 이해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 편집국과 보도본부는 각 부서별로 한데 모여 있지만 이 같은 물리적인 통합이 두 매체 기자들의 화학적인 결합까지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편집국과 보도본부 기자들은 "매체를 옮겨 새로운 취재방식과 제작기법을 배우다보면 신문과 방송 조직의 문화적 차이를 알게 되고 서로를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광영



올해 1월부터 채널A 보도본부에서 동아일보 편집국으로 옮겨 일하게 된 송찬욱 정민지 한정연 정동연 기자(왼쪽부터)

## 올해 신문기자로 변신한 방송기자들의 포부

### 편집국 경제부 한정연

신문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멘붕'을 몇 번 겪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드디어 입봉하는 날. 잘 해보라며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데... 이게 뭐가. 나는 그동안 소수점 숫자를 리포트에 넣어 본 적이 없었다. 코스피부터 중국·홍콩·일본 증시에 환율까지 모두 소수점 두 자리. 숫자들이 어려거리며 2단계 '멘붕'이 왔다.

편집국 은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민폐인 선배, 걱정스런 14년차 후배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고 신문 방송이 만나는 새 영역을 개척한다고 믿는다.

### 편집국 정치부 송찬욱

"신문 기사 어떻게 쓰면 돼요?" 한 선배에게 물었다. 신문과 방송을 모두 겪어본 기자 선배였다. 농담 섞인 답변이 돌아왔다. "존댓말을 반말로 쓰면 돼. 평소에 네가 잘 하는 거잖아?" 이 얘기를 들은 지 두 달이 되어간다. 조금씩 신문 기자의 '삶'에 적응해가고 있다. 아무 것도 모르던 1월초에는 신문식(式) 표현 하나하나가 어려웠다면 이제는 '글'이 어렵다.

방송기자로 일했던 지난 7년이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한다. 독자에게 화면을 보듯 생생하게 전하는 '나만의 기사'를 빨리 쓰고 싶다.

### 편집국 산업부 정민지

많은 기자들이 신문과 방송을 오간다. 방송기자인 나도 올해 동아일보에서 서툴게나마 신문기사를 써나가고 있다. 나처럼 자의로 간 사람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된 이도 있다.

낮선 근무 환경에 놓이게 된 이들은 체질을 바꿔 나가며 성장해간다. 숙달되지 않은 기자를 받아들이 부서도 업무 부담이 늘면서 당사자 버금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의 신·방 통합은 새로운 동료에 대한 연민과 우정, 소속감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고생하는 동료들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 편집국 사회부 정동연

신문으로 파견된다는 소식에 떨컸 겁이 났다. 사회부 사건팀에 배치돼 1년 만에 다시 찾은 현장과 경찰서 취재원들도 낯설게 느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첫 날 접경지 주민들을 취재하려 경기 연천에 갔을 때 모든 것들이 막막했다. 채널A 사회부에서 수없이 다녔던 지방 출장이건만... 주민들에게 들은 몇 마디 말을 온전히 글자만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여전히 낯선 환경이지만 방송기자로 배운 것들을 신문기사에 접목하는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김성규 기자가 '1인용 교통수단'이란 자신의 기사에 사진 모델로 등장해 '전동휠'을 직접 타보고 있다.

# 東友는 몸신이다

## 혈압 잡는 대나무 밟기 운동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으로 뇌졸중,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과 같은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꾸준한 혈압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나무 밟기'는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혈압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대나무를 밟고 선 후 대나무를 똑바로 누르준다는 느낌으로 발을 옆으로 옮기며 왔다갔다 반복합니다. 혈압도 잡을 수 있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 시선은 정면을 보고, 온몸은 반듯이 편 상태로 꽂꽂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끄러운 바닥에 대나무를 두고 운동하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수건이나 매트를 깔아 대나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영상을 보며 자세한 운동법을 익히려면 동영상 프로그램 홈페이지(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활용하면 됩니다.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이선정



- ① 발바닥 앞 1/3 지점으로 밟고 선 뒤 대나무를 똑바로 누르준다는 느낌으로 걸음을 옆으로 옮기며 밟는다.
- ② 발바닥 가운데 지점으로 밟고 선 뒤 걸음을 옆으로 옮기며 밟는다.
- ③ 발바닥 뒤 1/3 지점 뒤꿈치로 밟고 걸음을 옆으로 옮기며 밟는다.
- ④ 발바닥의 앞, 중간, 뒤 지점에서 옆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반복한다.
- ⑤ 각 위치마다 3번씩 반복한다.(약 30분)

Tip 폭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움직여준다.

# ‘먹거리X파일’ 일본에서도 TV로 본다

방송말 바꾸기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식당을 소개하는 ‘먹거리 X파일-착한 식당’이 지난 2월 6일부터 일본 내 한류 콘텐츠 전문 채널인 DATV에서 첫 방송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먹거리 X파일’은 총 26편이 방영될 예정이다. ‘착한 식당’ 코너는 좋은 식재료에 깨끗한 조리 과정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양심적인 식당을 소개하는 코너다.

‘먹거리 X파일’의 일본 진출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한류에 힘입어 아시아로 진출하는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는 많지만 해외에서 교양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먹거리 X파일’에서 지칭하는 착한 식당은 손님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식재료 선정부터 음식 조리, 손님들이 먹고 난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쏟는다. 채널A의 콘텐츠 판매를 담당하는 경영전략실 채널마케팅팀은 착한식당을 앞세우면 일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일본인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루는 사람들의 장인정신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

일본 DATV 관계자는 “‘먹거리 X파일-착한식당’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착한 먹거리 정보를 알리고 식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콘텐츠를 방영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먹거리 X파일’은 지난 1월 31일 200회를 맞았다. 2012년 2월 10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검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종편 시사 예능 교양 부문에서 최초로 3%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특히 지난해



불량 먹거리 고발과 착한 식당 발굴에 앞장서온 ‘먹거리 X파일’의 주역들. 김군래 PD, 김진 앵커, 정희욱 제작(왼쪽부터)

## 올해 200회 맞은 ‘먹거리X파일’ 한류에 합류 ‘착한식당’ 편, 일본 한류전문 채널서 2월 6일 첫방송

### 日 DATV “한국 관심많은 시청자에 착한 먹거리 알린다”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시간대 종편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지키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200회를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접근방식 때문이다. 유해한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 편법

관행을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범이 될 만한 ‘착한 식당’을 소개한다.

제작진은 정직하게 음식을 조리하는 ‘착한 식당’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을 수소문 한다. 아쉽게 착한 식당으로 선정되지 못한 곳도 지적받은 내용을 개선

하면 재검증의 기회를 주는 등 모든 식당이 착한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1월부터 ‘먹거리 X파일’과 함께 해온 김군래 PD는 “‘먹거리X파일’은 고발 프로그램이지만 일반인 출연자들의 진솔한 사연을 보여주는 휴먼다큐적인 시선도 함께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 올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한국음식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수영

## 불에 데일라 → 불에 델라 불필요한 ‘이’ 넣지 마세요.

“조심해라, 불에 데일라” 이 문장은 바르게 쓴 걸까.

‘불이나 뜨거운 기운으로 살이 상하게 된 상태’나 ‘몹시 놀라거나 심한 괴로움을 겪어 진저리가 나는 상황’을 나타낼 때 ‘데이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데다’로 써야 바르다.

‘데이다’는 피동사를 만들 이유가 없는 말에 쓸데없이 접사 ‘-이’를 붙여 쓰는 잘못된 경우다. ‘데이다’로 잘못 알고 ‘데어’ ‘데어서’ ‘데이니’ 등으로 쓰기도 하는데 ‘데이’ ‘데어서’ ‘데니’ 등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 “조심해라, 불에 델라” 이렇게 표현해야 바르다. ‘입천장을 데였는지 따끔거리다’는 문장은 ‘입천장을 데었는지 따끔거리다’로 써야 한다.

불필요하게 접사 ‘-이’를 넣어 잘못 사용하는 말이 의외로 많다. ‘몸에 배인 습관’이란 표현도 틀린 경우다. ‘배다’에 이미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몸에 밴’으로 쓰면 충분하다.

‘흐리거나 굵은 날씨가 맑아지다’는 의미의 ‘개다’는 ‘개이다’로 써서는 안 된다. ‘맑게 갠 하늘’ ‘오후엔 날씨가 개겠다’ 등으로 쓰인다. ‘(가슴이) 설레다’를 ‘설레이다’, ‘(목이) 메다’를 ‘메이다’, ‘(바람이 살을) 에다’를 ‘에이다’로 쓰면 안 된다.

심익심 심익심 김용길



1월 28일 동아미디어센터 앞에 위치한 채널A의 상징물 A트리가 2016년 새해를 맞아 ‘안녕하세요’ 글로벌 메시지로 새단장을 했다. 15개국 이상의 인사말을 표기한 ‘안녕하세요’ A트리는 청계 광장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고 늘 열려있는 따뜻한 언론사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 “나 개밥 주러가” 돌발영상… 눈길 끈 프로그램 홍보

매일 밤 11시대 방송되는 채널A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시사·교양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나섰다.

채널A는 2월 12,15일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전후 촬영현장 뒷이야기를 담은 3건의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 출연자 방송 직후 돌발행동’ 편에서는 ‘김승련의 뉴스 TOP10’ 진행자가 마무리 멘트를 하자마자 패널 중 한

명이 부리나케 촬영장을 빠져나간다.

앵커가 “어디 가냐”고 묻자 “나 오늘 개밥 주러 가야해”라며 빠르게 사라진다. 금요일 밤 11시 프로그램인 ‘개밥 주는 남자’의 홍보영상이다. ‘뉴스특급’ 진행자들이 건강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다가 “몸신 보세요”라며 “나는 몸신이다”를 홍보한다. 기상캐스터가 등장한 영상은 ‘풍문으로 들었쇼’ 홍보 영상이다.

실제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미방송

영상, 비공개 영상을 가장한 일종의 페이크 영상이다. ‘뉴스 시작 전 앵커들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 ‘앵커와 출연진은 방송이 끝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등 시청자의 호기심을 활용한 것이다.

3건의 홍보영상은 유튜브에서 ‘채널A 미공개 영상’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채널A 공식 페이스북 채널 (<https://www.facebook.com/tv.ch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수영



‘김승련의 뉴스 TOP10’ 홍보 동영상 캡처장면. 생방송 직후 급하게 자리를 뜨는 이동영 편집국 차장에게 김승련 앵커가 “어디 가냐”고 묻자 차장이 “나 개밥 주러가”라고 답한다.

##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이름
- 부서
- ① 출생연도
- ② 최종학교
- ③ 전 직장
- ④ 입사 후 포부, 꿈
- ⑤ 요즘 관심사



**신아람**  
보도본부 사회부

- ① 1989년
- ②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 ③ 파이낸셜뉴스
- ④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며 시청자와 함께 하는 양질의 리포트를 만들겠습니다.
- ⑤ 운전면허, 총선



**이현수**  
보도본부 사회부

- ① 1987년
- ② 숙명여대 아동복지학·정보방송학과
- ③ 머니투데이
- ④ 보고 읽을 만한,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 ⑤ 아동학대, 버니 샌더스



**이현용**  
보도본부 정치부

- ① 1989년
- ② 경희대 법학과
- ③ BBS 불교방송
- ④ 회사 안팎으로 손색없는 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⑤ 동네 조기축구회 가입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홍우람**  
보도본부 사회부

- ① 1989년
- ②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 ③ 뉴스1
- ④ 통신사 기자의 경험을 살려 방송 뉴스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싶습니다.
- ⑤ 디지털 뉴스 플랫폼 및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습니다.

